

조계종 진흥원특위, 진흥원 공식 방문기로

조계종 중앙종회 대한불교진흥원특위 위원회(위원장 정념)가 진흥원을 공식 방문기로 했다. 하지만 양측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진흥원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4월 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과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정념 스님, 진화 스님, 제정 스님, 박종현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소위원회는 이날 “진흥원과의 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진흥원을 공식 방문하기로 했다. 방문 일정 등은 위원장 정념 스님에게 위임했다.

신성민 기자

“사회 변혁위해 종교계가 나서자”

KCRP, ‘담게 살자’ 세미나 개최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의장 자승, 이하 KCRP)는 3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범종교인 ‘담게 살겠습니다’ 운동 실천과제 선정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 2월 25일 범종교인 ‘담게 살겠습니다’ 운동 선포식에 이어 구체적인 운동실천을 위한 행보다.

이날 불교 패널로 나선 임정수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은 “조계종은 3년 전 자성과채신결사체추진본부 구성, ‘벗다로 살자’ 운동을 전개해 부처님 정신의 생활화·대화·사회화에 앞장서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중앙신도회는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담게 살자’ 운동으로 네 가지 거룩한 마음인 자(慈, 사랑), 비(悲, 더불어 아파함), 희(喜, 더불어 기뻐함), 사(捨, 버림)를 실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주제 강연자로 나선 권길중 담게살자운동 준비위원장(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인협의회 회장)은 “학교 폭력, 노사갈등, 세대갈등, 빈부격차 등 모든 사회적 문제는 공동체 정신의 해체에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각 종단이 지닌 이웃사랑 실천계열에 따라 자기 쇄신을 시작해 사회를 화합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7대 중당 대표로 불교 임정수(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 개신교 심영식(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 회장), 원불교 이지철(원불교 청운회), 유교 박병선(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 학술위원장), 천주교 김문태(서울대지체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 박익문 수습기자

따뜻한 식사에 어르신·봉사자도 ‘웃음꽃’

1일, 탑골 원각사 급식 재개... 원경 스님 원력 계승

지난 3월 2일 문을 닫았던 종로 원각사 무료급식이 한달여 만에 다시 재개됐다. 종로 탑골공원 한켠에서 가난한 어르신들의 주린 배를 책임졌던 원각사의 자비의 원력이 사라지지 않고 계승된 것이다. 심곡암 주지이자 前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 스님이 자비의 원력을 이어가게 됐다.

원각복지회(회장 원경)는 중단됐던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을 4월 1일자로 재개했다. 원각사는 오전 10시 여는 때와 같이 사시예불로 봉사를 시작했으며, 재개 첫날인 만큼 탑골공원 인근을 가두 행진을 하며 원각사가 다시 문을 열었음을 어르신들에게 알렸다.

원각복지회장 원경 스님은 예불 후 인사말을 통해 “보리 스님이 남긴 22년의 원력을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모든 것이 스님의 원력과 노보살님들의 봉사와 헌신이 있어서 가능했다. 앞으로도 자비의 원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각사 무료 급식이 다시 시작되기까지 우려곡절도 많았다. 원경 스님에게 원각사 탑골 무료급식을 제의했던 이는 다음 아년

심곡사 신도이자 원각복지회 후원회장인 강위동 거사. 5년 전부터 한 달에 한 번 이곳에서 배식 봉사를 해왔던 그는 지난 1월 급식폐쇄 소식을 접하고 고민을 거듭하다 평소 적을 두고 다니던 심곡사 주지 원경 스님에게 이를 논의했다.

이대로 22년 자비 원력을 저버릴 수 없다고 생각한 원경 스님은 탑골공원에 직접 ‘현장답사’를 나갔고 어떻게 해서든 원력을 이어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어디 하나 의지할 데 없는 어르신들을 사회가 보듬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강위동 원각복지회 후원회장은 “3월 2일 마지막 급식을 진행했던 원각사 무료 급식소는 이미 다른 세입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수차례 만류하고 설득했다. 결국 건물 임대에 대한 계약을 다시 맺었다”면서 “자비의 원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오, 본격적인 급식의 시작. 오늘의 식단은 나물비빔밥에 두부조림, 미역국이다. 거기에 별식으로 떡과 바나나가 함께 제공됐다. 고풍으로 밥을 올린 어르신들은 맛있게 비벼 먹고 양손에 별식을 두둑이 챙겼



종로 원각사 무료급식이 4월 1일부터 재개됐다. 보리 스님의 지병으로 문을 닫게 된 원각사의 자비 원력은 심곡암 주지 원경 스님이 이어 받았다. 사진은 원경 스님이 배식 봉사에 나선 모습.

급식 재개 첫날 188명 방문해 안정 운영위한 봉사·후원 절실

“노년 소외계층 외면할 수 없어”

원경 스님 · 강위동 씨 의기투합

원각사 무료급식 원력 이어가자

다. 재개 첫날에만 188명의 어르신들이 다녀갔다.

김세중(83) 씨는 “사찰음식을 상당히 좋아한다. 좋은 시절에는 일부로 찾아가서 먹었다”면서 “오랜만에 절밥을 먹었더니 기분이 좋다. 건강해지는 느낌이다”라고 반겼다.

원각사의 터주대감 자원봉사자들도 즐겁기는 마찬가지. 보리 스님과 함께 급식 봉사를 시작한 강영순(75) 씨는 그간의 봉사 경력을 살려 질서 유지에 여념이 없었다. 좁은 급식 장소를 고려해 순서를 지키

“포교사단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부터”

조계종 포교원, 4월 1일 ‘지역포교와 포교사단’ 연찬회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4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지역포교와 포교사단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제61차 포교총책연찬회를 열었다.

“포교사단 정책방향은 포교원과 교구본사, 사찰, 포교사단 중앙 단위에서 최적화된 활동 환경을 조성토록 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윤영희 조계종 포교원 포교차장은 4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지역포교와 포교사단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연 제61차 포교총책연찬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영희 차장은 ‘지역포교와 포교사단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포교사단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불교가 모색을 시작한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역량을 모아간다면 미래불교는 가능성을 꿈꿀 수 있을 것”이라며 포교사단 활동 활성화를 모색했다.

이날 윤 차장은 △사찰이 지역 공간 플랫폼으로서 기능 △지역의 불교총량을 종합하고 전략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구심체로서 교구본사의 기능 △포교사단은

포교원의 정책방향을 실현하는 포교기구로서 역할 수행 △포교사단은 모든 가능성으로 재설계하고 사찰이 갖고 있는 풍부한 콘텐츠를 그 안에 담는다면 지역사찰은 새로운 주목을 받을 것”이라며 “스님이 풀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불교계는 지역의 물적·인적자원의 총량을 추산하고 연대 틀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도록 교구본사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차장은 포교원의 역할을 강조하

며 “포교원은 지역포교의 큰 틀을 바라보며 각각의 포교주체가 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과 조율사로서 지역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소중한 인적자원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으로 에너지가 소모하지 않도록 포교사단과 함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는 ‘포교사단의 미래성과 포교사단의 품위’ 주제 발제에서 “포교사단 현황은 2014년을 기준으로 남성 2192명, 여성 2232명으로 남녀 구성비는 거의 비슷하다”며 “포교사단은 거사들을 불교계로 끌어들이며 활동하게 하는 새로운 장이자 장치로 평가할만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전호균 포교사단 서울지역단 교욱위원은 ‘포교활성화를 위한 교구와 사찰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사회각 분야에서 활동해온 경험을 가진 포교사들을 육성해 현장의 포교활동에 동참토록 함으로써 스님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해결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한다면 포교효과를 높이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행복바라미 축전 준비 ‘START’

날마다좋은날 30일 홍보대사 위촉행사 개최

5월 1일 광화문서 알림식

올림픽 국가대표 등 스포츠 스타들이 전통문화 발전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자리에 모였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이기홍)은 3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5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해마다 부처님오신날(음력 5월 25일)을 기해 열리는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은 자비문화 확산을 위한 대규모 거리모금과 다양한 공연·전시 등이 어우러지는 문화축제다.

올해는 5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 알림식을 시작으로 전국 140곳에 모금소를 설치하고, 10일까지 광화문광장·부산 광복로·대구 동성로 등 전국 10곳에서 지역문화제를 펼칠 예정이다. 모금 기금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2013·2014년 행복바라미 캠페인은 보름간 전국 120여 개 모금소 운영을 통해 사회복지망 사각지대에 있는 468명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금을 전달했다.



(사)날마다 좋은날은 3월 30일 ‘2015 행복바라미 문화축전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또한 행복바라미 캠페인은 행정자치부의 사업승인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한국관광공사 등의 후원을 받는 등 공식사업으로서의 공신력을 확보했다.

날마다좋은날은 이날 캠페인 진행을 위해 부부 불영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인 조영선(광주체육회)과 손연희(용인시청)를 새롭고 위촉하고 위촉패를 수여했다. 날마다좋은날 홍보대사로는 손연재, 양학선, 조해리, 심석희, 공상정, 신아람, 김지연, 최현주, 이은대, 김현우, 정다래, 노민상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나는 기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기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속뜻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C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뜻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속뜻(최고60°C)보다 높은 고열(80°C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기,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 *아랫배가 병하거나 손,발이차신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신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